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1 시민자전거 무료교실에 참여한 시민들
2 타슈 자전거



2

대전시민 공영자전거 타슈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대전시민을 위한 자전거 대여제다. 타슈라는 명칭은 충청도 고유의 사투리 어조로, 약간 길게 부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배어나는 정겨운 이름이다.

타슈 공영자전거 시스템의 대여와 반납이 이뤄지는 자전거 정류장을 스테이션이라고 한다. 스테이션은 무인으로 대여와 반납이 이뤄지며, 임의의 스테이션에서 대여해 스테이션에 반납하는 일종의 대중교통수단이다.

도시의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자전거 대여 플랫폼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빌려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녹색교통도시 대전을 즐길 수 있다.

대전시는 시민 공영자전거 타슈를 지역적 여건에 따라 확대·구축해 시민 이용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연계성과 유동인구를 고려해 공동주택, 대학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에 확대 구축하고 아파트 신축 지역 등 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 배치하게 된다.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2019년 1월~2020년 12월 시스템 개선방안 확정(용역 추진)과 시범 구축사업을 마치고 2021년 12월까지 무인대여시스템 전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또 홈페이지 개선, 모바일 앱 개발, 공공교통 환승 연계, 공유전기 자전거 도입 방안을 마련해 시민 누구나 타슈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전시민 모두 자전거 보험 가입...최대 3천만원 보장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사망(1천700만원), 후유장애(1천7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사고당 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천만원 한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시정 소식)나 자전거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bike>)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